

# 2022 설날 가정예배 (추도예배) 순서지

묵상기도 \_\_\_\_\_ 다같이

신앙고백 \_\_\_\_\_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_\_\_\_\_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_\_\_\_\_ 다같이

-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 하게 하시네
- 2절** 몸도 맘도 연약 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살길 헤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하며 가리라
- 3절**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 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대표기도 \_\_\_\_\_ 담당자(뒷면참조)

성경봉독 \_\_\_\_\_ 느헤미야 8장 6~10절 \_\_\_\_\_ 다같이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설 교 \_\_\_\_\_ 인도자(뒷면참조)

합심기도 \_\_\_\_\_ 다같이

주기도문 \_\_\_\_\_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6:9~13)

## 대표기도 예문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사, 예수님을 닮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말씀이 주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엄습하여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설교 예문

오늘 설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은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 후 나팔절로 모였습니다. 유대인은 7월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신년으로 지켰는데, 이 날 나팔을 불어 새해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새해 첫 날 말씀 앞에 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 1. 이스라엘은 말씀 앞에 울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견딜 수 없게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가정도 말씀 앞에 우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기 위해 버리고 포기할 것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핍시다.

### 2.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8:10) 느헤미야는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날은 주의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옛적에도, 지금도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실패를 은혜로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올해를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은혜로 바꾸실 것입니다.